**세계화시대의 역사보기**

**기말 레포트**

­­



**2016722074**

**컴퓨터정보공학과**

**김영태**

**소련은 왜 성공하고 또 왜 실패했는가**

1. **소련의 탄생 배경**

소련.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또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맹이라고 불린다. 소련은 1922년부터 1991년까지 현재 러시아 국가에 위치해 있던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였다. 소련의 탄생은 1917년에 일어났던 러시아 2월 혁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는 300여년간 이어졌던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황제로서 1917년 2월에 있었던 러시아 2월 혁명으로 인해 퇴위 하게 된다. 1914년 7월 28일에 발발한 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당시 러시아 사회는 큰 혼란을 겪게 된. 당시 러시아의 상황을 단편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들이 먹을 우유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당시의 러시아 사회는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렸다. 경제난을 겪는 동안 러시아의 공장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키는 등 민중들의 시위가 격해지곤 했다.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니콜라이 2세는 군대를 보냈지만 군인들마저 노동자들의 편에 서게 되고 결국 진압은 실패하게 된다. 결국 니콜라이 2세는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임시정부가 설립되게 된다.

그리고 1917년 11월 7일에 레닌의 주도하에 10월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레닌은 당시 러시아의 급진적 공산주의 분파이자 유라시아 북부지역의 공산주의 정당인 볼셰비키를 인솔했던 인물로서 러시아 제국의 혁명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레닌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을 발전시킨 혁명가인데, 그는 1917년부터 러시아 임시정부 국가원수로 재임하고 이후 소련의 설립까지 6년간 최고 권력자의 자리로 실권한다. 그가 이끈 공산주의 정당 볼셰비키는 적위군을 조직해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라 불리는 러시아 제국의 수도 페트로그라드를 장악한다. 이 혁명에 반대하는 백군과 외국 열강은 볼셰비키와 적대하게 된다. 이에 백군과 외국열강 그리고 볼셰비키 사이에서 러시아 내전이 발발하게 된다. 레닌이 이끈 볼셰비키는 러시아 내전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어 1922년 12월 30일에 열린 소비에트 대회에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벨로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자카프카스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이 연합하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성립이 선언되었고, 이렇게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이 탄생하게 되었다.

1. **소련의 발전과정**

러시아 혁명과 레닌이 이끈 볼셰비키의 러시아 내전 승리로 소련은 탄생하게 되었다. 소련을 이끈 레닌은 1918년에 있었던 암살미수에 의한 후유증과 과로 그리고 여러 질병 등이 겹치면서 건강상태가 크게 악화 되었고 이러한 레닌의 후계 자리를 두고 트로츠키와 스탈린이 격돌하게 된다. 당시 젊은 나이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았던 스탈린과 적위군을 창설해서 러시아 내전을 승리로 이끈 트로츠키간의 싸움은 결국 스탈린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트로츠키는 1927년 국외로 추방당하고 추후 그는 멕시코에서 암살을 당하게 된다.

소련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다. 1980년대 말 고르바초프가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소련의 경제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계획 경제체제였다. 1928년 스탈린에 의해 계획된 5개년 경제계획이 크게 성공하면서 소련은 큰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된다. 1930년대에 발생한 대공황으로 인해 자본주의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지만 당시 소련은 대공황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아주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938년에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에 올라서게 되었다.

사실 소련이 처음부터 강력한 국가였던 것은 아니다. 1928년까지만 해도 소련의 공업 생산량은 미국의 1/8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때 당시의 소련은 서구열강들의 눈 으로 보았을 때는 그저 가난한 농업국가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소련의 초창기에는 레닌이 소련을 공업국가로 만들어 소련을 발전시키기 위해 신경제 정책을 펼쳐 작은 규모의 사기업과 상업을 인정하는 등의 정책들을 도입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레닌 이후 소련의 실권을 잡은 스탈린은 소련이 서방에 비해 매우 뒤쳐져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련의 모든 산업과 경제 활동을 국가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소련을 공업국가로 만들어 전체적인 국가의 발전을 꾀했던 스탈린의 노력은 이후 빛을 발하게 된다. 1930년대 미국에서부터 대공황이라는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전 세계 자본주의 경제사회를 뒤흔든 대공황사태가 발발했을 때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가 크게 몰락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들이 대공황의 여파로 경제 회복에 전념하는 동안 소련은 대공황을 무시하고 크게 성장했다. 스탈린에 의해 통제되고 외부의 여파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당시 소련의 경제 체제는 다른 자본주의 국가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때의 성장으로 소련은 유럽 제1의 공업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이때 스탈린의 주도로 인한 초고속 공업화는 소련을 강대한국가로 만들긴 했지만 그 이면에는 혹독한 인권탄압과 희생이 있기도 했다. 당시 초고속 공업화를 위해 농민을 쥐어짜는 등의 탄압이 있기도 했고 정치적으로도 대 숙청을 감행하는 등의 어두운 면도 있었는데, 이러한 어두운 이면이 있음에도 대공황을 큰 피해 없이 넘기고 큰 경제 발전을 이룩한 스탈린의 업적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소련이 이와 같이 성장하는 동시에 독일에서는 아돌프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나치가 독일을 이끌고 있었다. 1939년 8월에 소련과 독일은 독일소련 불가침 조약을 맺고 2차세계대전 초반에는 나치 독일과 폴란드를 양분하고 핀란드를 침공하여 영토의 일부를 할양 받는 등의 순조로운 행보를 보이다가, 1941년 6월 나치 독일은 독소불가침조약을 파기하게 된다. 이때 독일과 소련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는데 이 전쟁을 ‘대조국전쟁’ 이라 부른다. 전쟁 초반에는 소련이 독일에 밀렸으나 이후의 전투에서 연이어 승리하면서 1945년 5월에 베를린을 함락하는데 성공한다. 소련은 1930년대의 대공황으로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이 경제 회복에 전념할 때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또 2차세계대전에서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등 끊임 없는 발전을 이룩한다.

2차세계대전에서의 승리로 소련은 이전에 잃었던 영토를 회복하고 동독을 포함한 동유럽을 전부 영향권으로 집어 삼키게 된다. 소련이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동유럽 전체를 영향권으로 집어삼킨 데에는 강력한 군사력과 공산주의라는 이념의 매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먼저 소련은 스탈린의 주도하에 계획된 경제체제를 이룩하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는데 이는 1930년대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다른 행보였고 또 이러한 경제체제는 대공황을 순조롭게 피해가면서 주변국가, 또 다른 전 세계의 나라들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경제체제로 비춰졌을 것이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베를린을 함락하는 등 전 세계에 소련 군사력의 강함을 증명해 냈다. 이렇듯 대공황으로 인해 쓴맛을 보았던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공산주의는 매력적인 이념이었고 또 소련의 강력한 군사력은 주변국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소련의 확장은 동유럽에서 멈추지 않는다. 소련이 제시한 새로운 사상, 그리고 소련이 증명해낸 강력한 군사력은 동유럽 국가들만 매혹시킨 것이 아니라 동유럽 외에도 북한과 중국, 베트남 등의 국가들에게도 사상을 전파시키고 이 동유럽 외의 국가들이 공산주의로 갈아타는 등의 성과를 얻게 된다. 이렇게 주변국들이 소련의 위성국이 되어감에 따라 소련의 힘은 매우 강해졌고 위기감을 느낀 미국과의 충돌은 냉전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1. **소련의 몰락**

이렇게 세계 2위의 초 강대국이었던 소련의 경기는 1970년대를 들어서면서부터 침체되기 시작한다. 소련은 1950년대와 1960년대까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었는데 70년대 들어서 부진해진 소련의 경제는 계획경제의 비효율성 때문이었다. 1985년에 새 서기장으로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임명된다. 고르바초프는 침체된 소비에트연방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크게 노력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1985년부터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즉 개혁과 개방이라는 정책을 시행한다.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영국간의 치킨게임으로 석유값이 폭락하여 세수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고 심지어 1986년에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가 터지면서 결국 소련의 경제는 회생 불가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글라스노스트(개방정책)는 소련 체제 하의 온갖 비리와 범죄를 드러내어 소련 공산당과 소련 체제의 정당성에 흠집을 냈다. 한번 시장의 고삐가 풀리자 인플레이션을 막아낼 방법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고르바초프의 혁신 정책은 원래의 의도는 거의 이루지 못한 채 소련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붕괴를 초래했고, 억눌려 있던 민족주의가 발흥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1986년 12월 라트비아에서 처음으로 독립을 외치며 소비에트 연방에서의 탈퇴와 민족국가로써의 자주독립을 요구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환원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고르바초프의 정책 실패는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게 만들었고 동유럽 혁명이 발발하며 폴란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마저 독립을 선포하게 된다.

이후 1991년 8월 고르바초프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쿠데타 지도자들은 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대부분의 공화국과 시민들은 민간 저항을 시작하고 모스크바에서는 전역이 형성되었다. 러시아 SFSR 대통령의 보리스 옐친은 쿠데타를 비난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수천명의 모스크바 시민들이 러시아 주권의 상징적 장소인 러시아 연방 의회와 보리스 옐친의 사무실인 모스크바 백악관에 몰려들었다. 쿠데타 지도자들은 옐친을 체포하는 데 실패하며, 반격을 받게 되었다. 쿠데타 지도자들이 보낸 특수부대들은 관저 근처에 접근하지만, 바리케이드를 넘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쿠데타는 실패하고 쿠데타 도자들이 구금되고, 바초프는 서기장에 복귀되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능력은 완전히 상실되었으며 연방이나 러시아도 중앙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8월과 12월 사이, 무려 10개의 공화국들은 쿠데타의 공포로 독립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러시아는 크렘린을 포함하여 소련 정부가 남긴 것을 물려받기 시작했다. 1991년 12월 1일 열린 우크라이나 독립 투표에서 유권자들의 90%가 독립을 선택하며 우크라이나가 독립했다. 같은 년도 12월 25일 아침, 고르바초프는 소련 서기장의 사임을 발표하고 연방 해체를 발표하면서 옐친에게 모든 권한을 인계했다. 이 다음날 소비에트 최고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해산시켰다. 이렇게 한 시대를 주름잡던 강대국, 소련은 해체되어 끝나게 되었다.

1. **소련의 몰락 원인과 의의**

경제체제의 원인 )

2차세계대전 이후 초 강대국으로 성장했던 소련이 붕괴하게 된 이유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를 꼽자면 경제를 말할 수밖에 없다. 당시 소련은 다른 서구 국가들의 시장 경제 체제와 다른 중앙 계획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 체제 아래에선 국가가 모든 생산품(자동차와 신발, 빵 등)의 생산량을 정했다. 또한 시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물건이 몇 개인지, 물건의 가격은 얼마인지, 임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도 결정했다. 당시에는 이론상으로는 효율적이고 공정해 보였으나, 실제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고 이 경제체제 아래에서 공급은 항상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화폐는 종종 의미를 상실했다. 이후 고르바초프가 새로운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소련 경제는 속도감 있는 개혁을 시행하기에는 이미 너무나 불안정한 상태였고 결국 이런 실패는 정부에 대한 좌절감만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데올로기 )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이데올로기였다. 고르바초프는 글라스노스트(개방) 정책을 시행했다. 수십 년간 억압적인 정권하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질문하고 불평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에게 더욱 큰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개방은 소련이라는 국가의 사고 체계를 바꾸지는 못했다. 오히려 많은 소련 주민들에게 공산당 통치 체제가 비효율적이고 억압적이며 부패에 취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수십 년 동안 소련 주민들은 서방이 부패했고, 자본주의 정부하에서 국민들이 가난과 타락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로 이전과 다르게 더 자유로워진 국민들은 다른 국가의 생활 수준과 개인의 자유, 복지가 소련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련의 국민들은 큰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고 이는 이후 소련의 붕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사회주의의 패배? )

많은 사람들은 소련의 붕괴가 곧 사회주의는 실패한 이념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소련의 붕괴가 가진 의미를 볼 때 소련의 붕괴는 꼭 사회주의의 패배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소련은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이자 사회주의가 가장 크게 성공했던 국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소련 붕괴 직전 소련은 1917년 볼셰비키가 이끈 혁명에 의해 탄생한 사회주의에서 변질되어 노동자계급 중심이 아닌 관료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였다. 스탈린이 소련의 초고속 공업화를 진행하면서 소련은 그 전과는 전혀 다르게 바뀌었다. 스탈린이 주도한, 즉 스탈린주의 관료층은 국가와 생산 수단을 통제했고, 사회 전체를 통제했다. 스탈린주의의 사회는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라고도 불린다. 이는 스탈린주의의 작동 원리가 사실상 당시의 자본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기 때문인데, 소련은 생산수단의 사적인 소유가 불가능 했을 뿐 다른 서방 자본주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노동자 계급이 주가 아닌 국가 혹은 관료가 주가 되는 체제였기 때문이다. 당시의 소련은 미국과 같은 타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 경쟁을 벌였다. 이 경쟁 과정에서 소련의 관료층은 급격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 계급을 희생시켜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기존의 사회주의의 이념과 다른, 즉 노동자 계급이 주가 되지 않는 체제의 한계는 이후 1989년 소련의 체제 붕괴를 통해 드러났다. 따라서 소련의 붕괴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에서 사회주의가 패배했고 사회주의는 실패한 이념체제이다 라고 볼 수 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